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 Volume 1: The Complexities of Second Temple Judaism, D. A. Carson, Peter T. O'Brien, Mark A. Seifrid, ed., (Mohr Seibeck/Baker Academic: Tübingen/ Grand Rapids), 2001.<sup>1)</sup>

박형대(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바울 당대 유대교 사상, 특히 구원관에 대한 샌더스(E. P. Sanders)의 견해가 소개되자,<sup>2)</sup> 신약학자들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샌더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 당대 유대교는 공로주의(legalism)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혹은 언약적 신율주의, covenantal nomism)를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카슨(D. A. Carson)과 오브라이언(Peter T. O'Brien)과 자이프리트(Mark A. Seifrid)에 의해 편집된 위의 책(『칭의와 다양한 율법주의, 제1권: 제2 성전기 유대주의의 복잡성』)은 샌더스의 견해에 대한 일단(一團)의 학자들의 반응을 모은 것이다. 유대교 문헌에 대한 이 책은 같은 제목 하에 2004년에 출판된 『칭의와 다양한 율법주의, 제2권 바울의 역설(The Paradoxes of Paul)』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글을 기고한 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샌더스의 견해에 대해

- 
- 1) 지면 관계상, 또한 카슨이 결론 부분에서 각 논문의 요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05-540쪽 참고), 각 논문들을 요약하는 것은 생략한다.
  - 2) 이 논쟁을 촉발시킨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London: SCM, 1977)과, 그의 다음 저작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Five Studies* (London and Philadelphia: SCM and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와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 - 66 CE* (London and Philadelphia: SCM and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2)를 참고하라.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책 제목에서부터 이 점이 잘 표현되어있다. 우선, ‘다양한 율법주의’(variegated nomism)란 표현 속에, ‘언약적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주의도 공존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복잡성’(complexities)을 부제에 넣음으로써, 제2 성전기 유대교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모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와 관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sup>3)</sup> 이 책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는 문헌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전체 등으로 인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sup>4)</sup> 열네 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였기에 통일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샌더스의 견해를 비판한다는 입장에서는 다수가 썼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카슨에 의해 서론과 요약 및 결론 부분이 쓰인 것은 저자의 다양성을 보완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들은 유대교 문헌(제2 성전기[혹은 중간기] 문헌, 탈군, 랍비문헌)을 연구하여 바울 당대 유대교 내에 율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다뤄진 문헌은 색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경과 함께, 구약외경, 구약위경, 쿰란문서, 필로, 요세푸스, 미쉬나와 랍비문헌, 탈군, 기타 문헌 순으로 자료색인이 주어진다. 유대교 문헌을 기초 재료를 삼은 이유는 샌더스의 입장이 주로 제2 성전기 문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헌 면에서 보면, 사해문헌, 구약외경으로 불리는 『시락서』, 구약위경으로 분류되는 『에녹1서』, 『희년서』, 『솔로몬의 시편』, 『에스라4서』, 그리고 랍비문헌을 중심으로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한 샌더스보다<sup>5)</sup> 훨씬 더 광범위한 문헌들이 이 책에서는 다루어졌다. 좀 더 포괄적인 문헌이

3) 카슨은 1978년부터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로 섬기고 있고, 오브라이언은 호주의 무어 신학교 교수이지만 오랫동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모듈 강의를 했고, 자이프 리드는 트리니티에서 MA와 M. Div 과정을 마쳤고 강의도 했다.

4) 543쪽에 있는 카슨의 결론을 참고하라.

5)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ian Judaism*를 보라.

다루어졌기에 샌더스보다 더 설득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문헌들이 다양한 문헌 및 배경적 전제를 가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졌기에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든 면이 없지는 않다. 동시에, 몇몇 문헌을 기초로, 샌더스가 주장하는 ‘언약적 율법주의’가 틀리지 않았음이 주장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샌더스의 주장을 대체할만한 대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바울 당대 유대교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글들이 몇 개 있다. 그 중 카슨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선하고 주된 연구”라고 평가한 다이네스의 글(Roland Deines, “The Pharisees between ‘Judaisms’ and ‘Common Judaism’”)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꼭 읽을 만하다.<sup>6)</sup>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다이네스는 ‘유대주의들(Judaisms)’과 ‘공통의 유대교(Common Judaism)’ 사이에 바리새인들을 위치시킨다. 그에 따르면, 샌더스(Sanders)가 초대 기독교 당시에 “서로 충돌하는 많은 유대주의들”(many conflicting “Judaisms”)이 존재했다고 보면서도 “하나의 연합된 공통의 유대교”(a united “Common Judaism”)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444), 바리새파가 여러 분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전제를 갖게 한 스미스(Smith)와 그의 제자들의 요세푸스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446-447). 또한, 다이네스는 구약외경과 구약위경을 바리새파를 포함한 여러 분파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448).

다이네스는 이 논문을 통해 초대 기독교 당시 유대교 사상의 주류는 바리새파였으며, 만일 ‘공통의 유대교’를 언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파를 지칭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논증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리새주의’는 “기원전 150년과 기원후 70년 사이의” 팔레스타인 유대주

---

6) <http://www.tyndale.cam.ac.uk/Tyndale/staff/Head/Pharisees.htm>를 통해 다이네스의 글에 대한 블리(Roy Bewley)의 요약 및 질문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2002년 캠브릿지 신학부에서 열린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이다.

의 중,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종교 운동”(503)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그는 먼저 바리새파가 사회를 대항하여(against) 행동하는 분파가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는(shape) 분파라고 규정한다(449-450). 또한, 바리새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사두개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팔레스타인 유대인 대부분이 유대교의 서넛 분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450-451). 다이네스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455)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 위협받게 된 ‘공통의 유대교’가 마카비 혁명에 의해 지켜졌다고 본다(456-460). 또한 헬라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써의 마카비 혁명 이후, 전통적인 ‘공통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시도의 차이에 따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세네파로 나뉘었다고 보고(460-461), 그 증거로 4QMMT를 든다(461-463).<sup>8)</sup>

키르론(Qimron)과 스트루그넬(Strugnell)은 4QMMT의<sup>9)</sup> ‘우리’ 그룹을 쿵란공동체로, ‘그들’을 바리새파로 보고, ‘우리’ 그룹이 잘못된 성전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너희’ 그룹에 편지를 쓴다고 보지만(463-465), 다이네스는 슈바르쯔(Schwartz)와 에셸(Eshel)의 견해를 따라, ‘너/너희’ 그룹을 바리새파로 보려한다. 다이네스가 슈바르쯔와 에셸의 견해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백성의 무리 혹은 다수

7) 참고로, 이 시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기원전 175-163년)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 위협받던 시기 및 예루살렘 파괴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8) 캠브릿지 신학부에서 가졌던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드리덴(Jeff Dryden)이 발표한 “4QMMT”는 아직 다음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www.tyndale.cam.ac.uk/Tyndale/staff/Head/4QMMT.htm>).

9) 4QMMT는 쿵란 제4동굴에서 발견된 6개의 단편 두루마리(4Q394-399)를 키르론과 스트루그넬이 묶어 출판한 합성본문(E. Qimron and J. Strugnell, ed., *Qumran Cave 4. V. Miqsat Ma'ase ha-Torah*,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X [Oxford: Clarendon Press, 1994])의 C항 27줄에 있는 “토라 행위의 일부”(מִקְצַת מַעֲשֵׂי הַתּוֹרָה)의 히브리어 세 단어의 첫 글자들(מנח)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여 만든 이름이다. 다이네스의 글에서는 이 서신에 등장하는 ‘그들’과 ‘너/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

(로브 하암, רוב הים)와 사두개파의 ‘성전 확립’ 시기를 연결 짓는 것이다(474). 슈바르츠는 ‘그들’을 사두개파로, ‘그들과 연결된 백성의 무리를 ‘악한 제사장의 무리’ 보고(469), 에셀은 ‘그들’을 기원전 159-152년에 대제사장을 지낸, 알려지지 않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헬라화된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본다(471-472). 한편, 다이네스는 ‘너/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본다. ‘너/너희’에 대한 입장은 슈바르츠와 에셀의 견해를, ‘그들’에 대한 입장은 키르론과 스트루그넬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편지 수신자인 바리새파가 백성 대다수를 가리키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한 것이다.

4QMMT의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요세푸스의 글이 제시된다(474-477). 다이네스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 내의 세 분파들(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센파)에<sup>10</sup> 속해 있지는 않았겠지만, 유대교 분파들이 백성들 대다수의 태도를 대표한다고 믿는다(474). 그는 ‘그 땅의 백성’(암 하-아레츠, עם הארץ)를 사해문헌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단순한 사람들과 연결 짓는 플러서(Flusser)의 견해를 받아들인다(477). 다이네스는 백성들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아 율법을 단순화시켜 해석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본다(502). 결국 ‘백성의 무리’가 백성 대다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475-477).

4QMMT와 요세푸스의 글을 기초로, 하스모니안 왕조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시기의 ‘공통의 유대교’를 바리새파와 연결한 다이네스는 구약외경, 구약위경, 사해문헌에 속하는 열두 개의 문헌을 역사적 정황 속에 위치시키면서 유대교 세 분파와 연결시켜본다. 분파별로 정리해보면, 바리새적 문서로, 구약외경 『유딧』(479), 『마카비1서』(479), 『마카비2서』(479)과, 구약위경 『솔로몬의 시편』(480), 『에스라4서』(488-490), 『바룩2서』(488-489)가 있고, 민족적 바리새파 진영의 문서로 사해문헌 중 『금식 두루마리』(484-486)가 있고, 바리새-서기관적 환경에서 쓰인 문서로 『선지자들의 생애』(484)가 있으며, 랍비

10) 다이네스는 열심당을 바리새파 내의 일부 그룹으로 본다(474, 499).

유대주의 문서로 거짓 필로의 『성경고대사(Liber Antiquitatum Biblicarum)』(486-487)가 있다. 바리새-서기관 운동을 비판한 문서로는 구약위경인 『모세승천기』(481-482)가 있고, 옛센파와 관계있다 여겨지는 문서로는 구약위경인 『희년서』(477-478)와 『에녹서』의 비유의 책(483-484)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을 기초로 다이네스는 ‘바리새인’ 혹은 ‘바리새파의’이라는 말을 ‘모세의’ 혹은 ‘유대인의’라는 말의 동의어로 규정하고, 샌더스의 ‘공통의 유대교’란 다른 아닌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로 정의내린다(494). 즉, 토라 전통의 유대주의란 헬레니즘에 반대하는(495-496) 바리새파적 유대주의(494)인 것이다.

다이네스에 따르면, 결국 바리새주의는 꼼꼼한 사람들인 하베림(the Habirim)과 태만한 사람들인 암 하-아레즈 사이에서, 율법의 옛 형태들을 보편화시키고 개별화시킴으로써 ‘진정한 유대인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498), 무어(Moore)와 마이어(Meyer)가 주장하듯, 암 하-아레즈도 바리새파적 유대주의에 속하게 되었으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501). 다시 말해, 바리새주의가 규범적인 유대주의(normative Judaism)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다이네스의 연구는 구약외경과 구약위경을 배경 속에서 분파들과 관계하여 읽어 보려 했다는 장점과 더불어(477-491), 신약성경을 중요한 자료로 고려한다는 장점이(477, 481, 484, 486, 498, 499, 501, 503) 있다. 특별히 옛센파가 바리새파와 율법 면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면서(500) 신약성경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분파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이유를 설명하고(501), 자신의 논지를 신약성경에 바리새파가 많이 등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502). 성경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을 필자는 다이네스 연구의 장점으로 들고 싶다. 또한, 바리새주의가 신약성경시대 유대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때, 바리새파였던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모델로 등장하는 이유(행 9-28장)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바리새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행 21:20) 이유

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요한 논거가 4QMMT에 근거하고 있고 이 문서에 등장하는 ‘우리’, ‘너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에, 그의 논지는 아직 불안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전파괴 이후 문서들인 『성경고대사』 및 『에스라 4서』와, 성전파괴 이후 문서일 가능성이 있는 『금식 두루마리』의 경우, 성전파괴로 인해 율법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글이 샌더스의 주장에 대한 반응임을 생각할 때, 샌더스가 접할 수 없었던 문서인 4QMMT와 그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요세푸스를 기초로 논지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열두 문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보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다이네스 외에 사해문헌을 많이 다룬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박뮤얼(Markus Bockmuehl, “1QS and Salvation at Qumran”)이고, 다른 하나는 폴크(Daniel Falk, “Prayers and Psalms”)이다. 박뮤얼은 다이네스처럼 샌더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해문헌을 다루지 않고, 샌더스가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던 공동체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샌더스가 쿰란 『공동체 규례』(1QS) 등을 중심으로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한 것에 반해, 박뮤얼은 쿰란 공동체 규례(1QS) 자체가 ‘언약적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공로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388-402), 샌더스가 몰랐던 제4동굴에서 발견된 공동체 규례 문서(4QS)와 1QS 5에 나타나는 ‘본문 발전’의 요소를 중심으로 쿰란 내의 구원론이 조직화 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402-411). 동시에, 쿰란과 랍비유대주의가 같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샌더스를 비판한다. 박뮤얼의 글은 쿰란 공동체 규례 내에 있는 다양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폴크는 사해문헌 중 『선각자들의 말들』(4Q504, 4Q506), 『공동체 고백』(4Q393), 『공동체 규례』(1QS), 『구원 간구』와 『시편 155편』(11QPs<sup>a</sup>), 『감사 시』(Hodayot) 등과,

구약외경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므낫세의 기도』와 구약위경인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의 노래와 기도 안에 담긴 ‘언약적 율법주의’ 사상을 지적하면서도, 노래와 기도를 통해 조직적인 신학적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다이네스가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 요세푸스의 글을 다룬 논문이 있다. 스피스버리(Paul Spilsbury)의 “Josephus”이다. 그는 요세푸스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후견적 율법주의’(patronal nomism)란 개념으로 정리한다. 로마에 있던 후견인 제도를 요세푸스 해석에 도입해본 것이다. 요세푸스 글의 1차 독자가 로마 황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힘을 얻을 수는 있으나, 정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보관계(相補關係)로 제시하는지, 요세푸스가 전제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상보관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이네스 등 여러 학자들이 다룬 구약위경을 집중 적으로 다룬 두 사람이 있다. 에반스(Peter Evans, “Scripture-Based Stories in the Pseudepigrapha”)와 엔즈(Peter Enns, “Expansions of Scripture”)이다. 에반스는 『이사야 순교기와 승천기』, 『요셉과 아스낫』, 『아담과 이브의 생애』, 『선지자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믿음은 발견되기 힘들다는 식의 매우 소극적인 결론만을 내놓고 있다(72). ‘성경에 근거한 위경이야기’라는 제목을 제시했기에, 오히려 성경 자체에서 이러한 인물들과 관계하여 언급되는 신학적 주제를 다룬 후에, 이를 칭의 및 구원론에 적용했다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셉과 아스낫』을 다루면서 몇몇 표현을 신약성경의 것과 비교하면서 둘 사이의 유사점은 강조하지만(63-66), 두 인물에 대한 구약성경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스낫이 봉와(벌집)를 먹고 생명을 얻었다는 내용이, 꿀을

제물에 섞지 말라는 레위기 2장 11절이나 생명이 드러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반스는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66).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과 아스낏』에 공로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짚막하게 언급하는데(66), 이는 지금까지 논지를 벗어난 주장으로 보인다.

엔즈는 구약외경인 『에스라1서』, 다니엘서 추가분인 『세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에스더서 추가분』과, 구약외경인 『안네와 암브레』, 거짓 필로의 『성경고대사』, 『희년서』를 분석하면서, 샌더스가 전제한 선택(election)과 구원(salvation)을 구분하여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사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들어감(getting in)보다는 ‘존재함(being in)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했을 거란 제안도 한다. 엔즈가 구약외경과 구약외경을 통해 샌더스가 제시한 개념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자이프리트(“Righteousness Language in the Hebrew Scriptures and Early Judaism”)는 ‘의’라는 개념 자체를 구약성경과 전기 유대주의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는 ‘의’ 개념 속에 보응의 요소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바로 바울서신의 ‘의’로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여러 문서들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각 문서 간 차이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보컴(Richard Bauckham, “Apocalypses”)의 논문은 매우 탁월한 논문이다. 그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선택한 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문서 자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샌더스의 견해를 비판한다. 보컴이 다루는 문헌은 에녹 전승이 담긴 『에녹1서』, 『에녹2서』와, 『스바냐의 묵시』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반응이 담긴 『에스라4서』, 『바룩2서』, 『바룩3서』와, 『시빌 신탁』이다. 그의 주장을 『에녹1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컴은 우선, 샌더스가 율법 순종을 ‘들어감’보다는 ‘머무름’의 차원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만, ‘의안’이나 ‘참 이스라엘’이란 개념이 랍비 문헌과 비

교할 때 협소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한다(148). 『에녹1서』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데(148), 이는 상정된 독자가 의인들이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록목적이 배교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신실하기를 격려하는 데 있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컴은 주장한다(148-149). 그러면서도 초대 기독교인들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에녹1서』의 독자들과 다른 구분 기준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괄호 안에 참고로 제시하고, 또한 샌더스가 『에녹1서』와 랍비문헌이 “상당히 같은 유형의 종교”를 제시한다는 본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한다(148). 보컴의 글은 다루는 문헌들의 위치와 경중을 명확히 하면서 샌더스의 견해에 접근하기에 더욱 설득적이다.

데이비스(Philip R. Davies, “Didactic Stories”)는 『토빗』, 『유딧』,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마카비3서』, 『마카비4서』를 다루는데, 이들을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 장르로 구분하여 다룬다. 꼼꼼히 다루지는 않지만 문서 선정이 좋아 결론이 명확하다. 이 이야기들 안에서는 ‘개인적 칭의’가 ‘유대 백성의 칭의’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 자체 연구가 부족하여 샌더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다룰 만한 명제들은 도출되지 못한다. 퀴글러(Robert A. Kugler, “Testaments”)도 데이비스처럼 ‘유훈’에 속하는 『모세 유언』, 『욥의 유언』, 『열두 족장의 유언』을 다루었는데, 단순히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 면에서만 본문을 다룸으로써, 샌더스의 주장이 적절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게 되었다(213). 각각의 문서가 지닌 사상이 구약성경과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된 후, 그 결론이 샌더스의 견해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완(Donald E. Gowan, “Wisdom”)은 지혜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락』, 『비록』, 『솔로몬의 지혜』, 『마카비4서』, 『거짓 포키리데스』를 분석했는데, 문서 자체 분석을

결들임으로써, 이 문헌들에서 독자들은 ‘안에’ 있고 적들은 ‘바깥에’ 있다는 것이 가정된다는 것과, 주된 관심사가 ‘안에’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있다는 것과, 의인을 보존하신다는 구약 메시지가 재확인되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에 기초한다는 것을 잘 지적한다(239). 알렉산더(Philip S. Alexander, “Torah and Salvation in Tannaitic Literature”)도 랍비문헌을 신중하게 잘 다루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 중, 랍비유대교가 “근본적으로 ‘행위 의’의 종교”(300)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구약성경의 아람어 역인 탈굼을 분석한 맥나마라(Martin McNamara, “Some Targum Themes”)는 ‘언약과 ‘율법’을 연결 짓는 개념인 ‘언약적 율법주의’ 자체의 약점을 지적한다.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된 개념인 반면, ‘율법’은 정적인 상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헤이(David M. Hay, “Philo of Alexandria”)는 필로 저작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이네스의 글부터 시작하여 모든 논문들을 살펴보니, 바울 당대 유대교와 연관된 대부분의 문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다루고자 했던 시도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많은 문헌들이 대체로 매우 깊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뤄진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제2 성전기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다양한 모습을 가졌었다는 결론을 통해,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를 ‘공로주의’나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줌으로써, 장차 ‘공로주의’와 ‘언약적 율법주의’의 공존을 설명하는 유대교 율법주의 연구가 차후 과제임을 보여준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루는 문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 각각 문헌들에 대한 전제가 저자마다 달라 각각의 결론이 독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 문헌들과 샌더스의 입장에 대한 접근 방법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샌더스의 견해가 신약성경의 바울서신과 연관되기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구원론이 재조명됨과

동시에, 정리된 성경적 구원관 견지에서 제2성전기(전기 유대교) 문헌  
과 랍비(후기 유대교) 문헌의 자리매김을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사료된다.